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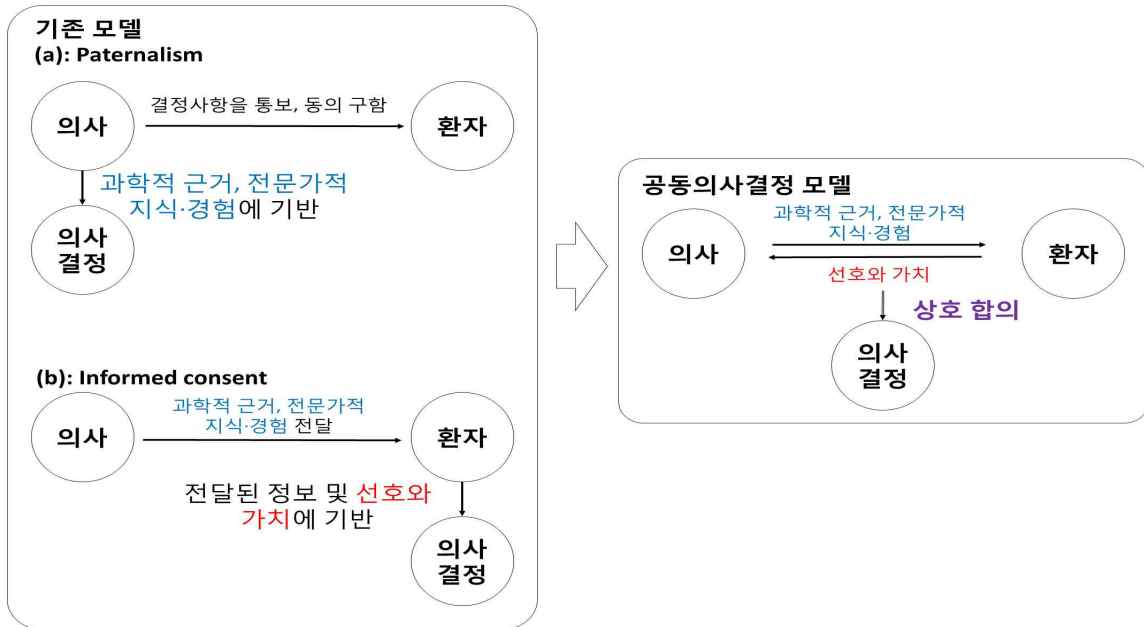
#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 신규사업 개요

## □ 신규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연구내용) 보건의료분야에서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환자의 건강결과 및 만족도 중심의 가치기반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의사결정모형 개발 및 효과평가 연구 사업 추진
- 의료기술평가에서 고전적으로 고려되었던 의료기술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과성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보건의료 난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별도의 원칙과 절차 필요
- 소비자 주권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가 동의하는 설명동의(informed consent)를 거쳐, 환자와 의사의 상호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제안되었음
- 의료기술 중심에서 가치기반의료\*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국내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시도가 적게 이루어짐
  - \*환자 개인의 가치 달성(개인적 가치),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최고의 결과 달성(기술적 가치), 모든 환자군에게 형평한 자원 배분(분배적 가치), 사회적 참여와 연결에 대한 보건의료의 기여(사회적 가치)라는 4가지 가치 위에 세워진 포괄적 개념이자 지향점(European Union, 2019)
- 민간에서 투자가 어려운 소비자 권리옹호 영역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가치기반의료 실현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 혁신적 R&D 수행 필요

## □ 공동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

- 환자와 의사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협력적으로 의사결정에 이룸
  - (의사) 치료법과 대안 등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지
  - (환자)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호와 가치, 신념을 확인하고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
-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원활한 정보 교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지원 도구를 이용할 수 있음



<공동의사결정 개념도>

□ 신규사업 추진분야 및 주요내용(안)

추진분야	주요내용
<p>① 공동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효과평가연구</p>	<p>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근거가 충분하여 임상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의료기술이 둘 이상인 경우의 공동의사결정 모형 개발 및 효과평가 * 지원규모: 연구비 연간 4억 * 연구기간 4년</p> <p>&lt;과제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전절제술 또는 방사선치료를 동반한 부분절제술 및 절제술 이후 복원 수술 여부 선택시 공동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의사결정 방식 비교</li> <li>- 안정형 협심증 환자 대상 약물방출스텐트 삽입 관상동맥중재술 실시 혹은 약물치료 선택시 공동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의사결정 방식 비교</li> </ul>
<p>② 공동의사결정 지원 기반연구</p>	<p>임상현장에서 수요가 높으나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 대상 공동의사결정 모형 적용을 위한 임상근거 생성 * 지원규모: ① 연구비 연간 4억 * 연구기간 4년, ② 연구비 연간 5억 * 연구기간 5년, ③ 연구비 연간 8억 * 연구기간 5년</p> <p>&lt;과제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수술과 기존 복강경 수술 선택 시 공동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의사결정 방식 비교</li> </ul>
<p>③ 공동의사결정 보건의료현장 적용 실증연구</p>	<p>환자의 선호와 가치에 맞는 의료와 돌봄을 위한 케어 코디네이션 과정에서 공동의사결정 실증연구 * 지원규모: 연구비 연간 4억 * 연구기간 4년</p> <p>&lt;과제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 대상 중환자실 연명치료 기속하거나 가정 등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 시 공동의사결정 방식과 기존 의사결정 방식 비교</li> </ul>